

법무부,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

- 전국 출입국외국인청(사무소)에 비상 긴급대응 지시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.

전국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 현재 미처리된 3,700여 건과 4월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,000여 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, 특별히 현재 적체 상황이 심각한 전주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는 긴급대응팀(2명)을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농번기에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대응에 나서라고 독려하였습니다.

또한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※ (계절근로자 규모 추이) '19년 3,497명 → '22년 10,630명 → '23년 32,489명 → '24년 57,247명
→ '25년 84,819명 → '26년 107,100명(예정)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병철 (02-2110-4217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석 (02-2110-4087)